

<2014년 7월 23일 수요일말씀>

생각이 살아 있는 자가 산 자다

본 문 마태복음 22장 32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.

이번 주 주일에는 ‘네 발의 신을 벗어라.’ 라는 주제로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.

주일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.

→ <순간의 기회>는 ‘순간의 생각과 실천’ 에서 온다.

<생각>과 함께 <몸>이 동시에 즉시 행해라.

그래야 ‘자기 희망’ 도 이루고, ‘휴거’ 도 이룬다.

그러나 ‘어떤 생각으로 행하느냐’ 가 중요하다.

거룩한 곳에서 ‘네 발의 신’ 을 벗어라.

성자 앞에서 ‘네 주관과 잔폐의 신발’ 을 모두 벗어 버려라.

‘자기 주관’ 을 빨리 버릴수록 <성자의 생각>이 임하여,
그 생각으로 행하니 빨리 휴거된다.

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수시로 읽으면서, <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>를 늘 점검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행하기 바랍니다.

오늘은 <생각>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 주겠습니다.

오늘 말씀의 주제는 ‘생각이 살아 있는 자가 산 자다.’입니다.

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
축원합니다.

<말씀 시작>

생각을 안 하면, 생각이 있어도 못 쓰게 됩니다.

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.

‘생각이 죽은 자’ 는 죽어 있는 자입니다.

‘생각이 산 자’ 가 살아 있는 자입니다.

생각은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.

생각을 안 해서 못 쓰는 것입니다.

생각에서 잊으면, 끝납니다.

<눈>으로 봐도 <생각>에서 잊고 보면 안 보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<눈>은 ‘하나의 기구’ 입니다.

마치 ‘비디오’ 나 ‘카메라’ 와 같습니다.

비디오나 카메라는 ‘스위치’ 를 켜야 작동하지요?

<생각>이 ‘스위치’ 와 같습니다.

고로 사람은 생각하고 봐야 보입니다. <끝>

* 사람은 늘 ‘눈’ 으로 보지만, 목적한 것을 ‘생각’ 하고 보지 않으면 못 봅니다.

- 가령, 몇 사람이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합시다.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생각을 안 하고 보면, 옷은 봤는데 무슨 색의 옷을 입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.

- 또 자기 고향에 ‘형상바위’ 가 10년, 20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는데, <눈>으로는 그 바위를 보았습니다. 그러나 어떤 형상을 인식하고 <생각>하고 보지 않았기에 그 바위가 ‘형상석’ 인지는 몰랐습니다.

→ 그래서 무엇을 볼 때는 <눈>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<생각>하고 봐야 보입니다.

* 지도자들도 생명들을 관리하면서 ‘생각하는 쪽’ 만 보입니다.

그래서 ‘배우고, 알고 보기’ 입니다.

- 가령 생명들 중에 이성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. 그런데 지도자가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면, 이성 문제가 있는데도 평생 봐도 안 보입니다.

- 혹은 생명들 중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. 그런데 지도자가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면, 재능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인재를 썩히게 됩니다.

- 생명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생각 없이 관리만 하면, 그 생명이 함정에 빠지기 바로 직전에 처해 있어도 땀 일을 합니다.

→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<생각의 스위치>를 켜고 ‘생각’ 하고 봐야 하고, 무엇을 하더라도 <생각의 스위치>를 켜고 ‘생각’ 하고 행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★ 생각하고 봤어도 ‘생각’ 에서 잊으면, 모릅니다.

<뇌>는 ‘원동기 역할’ 을 합니다.

<생각>은 ‘뇌가 기능하게 하는 역할’ 을 합니다.

<생각>이 <뇌>를 움직이는 것입니다.

고로 뇌가 굳지 않게 하려면,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.

계속 생각하지 않아서 뇌가 굳어 버리면,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도 귀찮습니다.

<생각>이 ‘뇌의 생명’ 입니다.

고로 <생각>을 잃으면, ‘본 것’ 도 잃게 되고, ‘들은 것’ 도 잃게 되고, ‘행할 것’ 도 잃게 됩니다.

성자도 <자기 생각>에서 잊고 있으면, 그 시간에는 성자가 생각나지 않습니다. 고로 ‘성자’ 를 잃게 됩니다.

생각날 것이 생각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. 기도하면 생각납니다.

‘자기를 위해서 행할 것’ 이 있는데, <생각>에서 잊어버리고 못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.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.

그리고 ‘자기를 위해 할 일’ 을 자꾸 생각하고, ‘성자와 주’ 를 자꾸 생각하고, ‘말씀’ 을 자꾸 생각하고, ‘생명들’ 을 자꾸 생각하여 생각에서 잊지 않고 행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방에 전깃불이 켜져 있으면 방이 밝지요?

이와 같이 항상 ‘성자’ 를 생각하고 ‘주’ 를 생각해야 <만물>과 <생각>으로 전해져 오는 ‘성자와 주의 말’ 이 밝게 들립니다.

사람은 생각에서 잊으면, 생각날 때까지 모릅니다.

모두 생각해 보세요.

어떤 물건을 어디에 뒀는데 <생각>에서 잊고 있으면, 다시 찾을 때까지 모르고 살지요?

‘성자’ 도 ‘주’ 도 ‘말씀’ 도 <생각>에서 잊고 있으면, 생각날 때까지 모르고 자기 삶에 빠져서 살지요?

<생각>에서 잊으면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아무리 <생각>으로 부르셔도 생각나지 않습니다.

고로 늘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 를 부르며, 범사에 이야기하고 대화하기 바랍니다. <생각>에서 잊지 말라고 늘 부르는 것입니다.

‘자기가 성자를 생각하는 시간’은 마치 눈으로 쳐다보듯 ‘생각의 눈으로 성자를 쳐다보는 시간’입니다. 그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<생각>으로 말씀하십니다.

성자는 전능자이며 절대 신으로서 <생각>에 역사를 하십니다.

성자를 늘 부르면 <자기 생각> 속에 ‘성자’가 살아 있으니, 늘 성자와 교통하며 그 생각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.

*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나는 신이라서 내가 불러도 너는 모른다.

너는 육이니, 먼저 나를 불러라.

그러면 나는 즉시 알고 너와 통한다.

고로 ‘인간 먼저 생각하기’다.

<생각의 불>을 켜라. <생각의 눈>을 떠라. 그래야 보인다.”

<잠시 쉬었다가>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<생각>이 ‘실상 세계’입니다.

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생각하면, ‘행한 것’이 됩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하시면, ‘행한 것’이 됩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축복을 주실 때 <생각>나게 해 주십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<생각>으로 대화하십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만물’을 보이고 ‘사람’을 보이면서 <생각>나게 하시며 대화하시고, 생시에서도, 꿈에서도, 영계에서도 <생

각>나게 하시며 대화하십니다. 그때 자꾸 이야기하기 바랍니다.

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잊지 않고 ‘주’를 생각하며 ‘주의 이름’을 부르는 자가 <구원>을 얻게 됩니다.

<생각>이 죽어 있으면, <구원>도 <휴거>도 안 됩니다. 생각이 죽어 있으니, ‘구원받을 생각’과 ‘휴거될 생각’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.

사람은 생각한 것만 행하게 되는데, ‘구원과 휴거’를 잊고 살고 ‘성자와 주’를 잊고 사니, <구원과 휴거>는 저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.

<생각>이 ‘축복’입니다. <생각>이 ‘생명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꿈을 꾀도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<생각>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.
<생각>에서 잊었기 때문입니다.

꿈을 꾸면, ‘꿈에서 흔히 본 것’이 ‘자기 육의 뇌와 생각’에 입력됩니다. 그러나 ‘생각의 강도’가 약하면, 곧 잊어버립니다.

생각이 청청할 때는 ‘새벽’입니다.

고로 꼭 ‘새벽’에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.

모두 <새벽 체질>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

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체질 말고, 새벽에 일어나서 청청한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 체질로 만들라는 말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<생각>이 죽어 있으면, 하루가 다 지나도 생각이 안 나서 못 합니다.

<생각>하지 않으면, ‘만물’이 살아 있고 ‘사람’이 살아 있어도 한 세월이 가도 모릅니다.

<생각> 없이 대하면, 대해도 모릅니다.

<생각>하지 않고 살면, 둘이 같이 사랑하며 살아도 모릅니다.

고로 생각하면서 행해야 됩니다.

<생각>이 살아서 행하는 자는 10배, 100배 더 행합니다.

*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<몸>은 늙어도 <생각>은 늙게 하지 말아라.

젊은이들 중에서 ‘생각의 늙은이’ 들이 너무 많다.

‘행실’을 보면 안다.

<몸>은 쉬어도 <생각>은 쉬지 말고 놀리지 말아라.

<생각>은 아무리 해도 피곤하지 않다.

생각을 많이 하면 뇌가 일을 한다.

<생각>이 빛이 나도록 늘 생각해라.

그리고 생각한 것을 잊지 않도록 늘 기록하고 보아라.”

(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

생각날 때는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도 생활하다 보면 일순간 잊어버립니다.

생각할 때는 눈으로 보이듯 보입니다. <눈>을 돌리면 보이던 것이 사라지듯, <생각>을 돌리면 일순간 생각에서 사라집니다.

생각을 집중해야 잊지 않고, ‘깊은 것’을 생각하고, ‘높은 것’도 생각나게 됩니다.

<생각>도 ‘하나의 육체’와 같습니다.

<육신>이 열 내서 행할 때 잘됩니다.

<생각>도 열 내서 집중해서 땀 흘리며 해야 잘됩니다.

<생각의 강도>가 그 사람의 ‘지능의 강도, 삶의 강도, 혼의 강도, 영의 강도’입니다.

생각을 집중하여 ‘다이아몬드 같은 생각’을 해야 됩니다.

‘금 같은 시간’을 가지고 <금>을 캐듯, ‘금 같은 생각’을 가지고 자기 시간들을 <황금 시간>으로 써야 되겠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<생각>은 ‘빛’보다 400억만 배 빠릅니다.

<혼체>와 <영체>도 그러합니다.

빛보다 빠른 <생각>도 둔하면, 늦어서 얻을 것을 못 얻습니다.

<육>은 ‘움직이고 행한 것’ 이 행한 것이지만, <생각>은 ‘생각한 것’ 이 행한 것입니다.

‘생각 없이 사는 자’ 는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.

‘생각의 눈’ 을 뜨고 ‘육의 눈’ 으로 쳐다보세요.
그래야 입력됩니다. 그래야 찾을 것을 찾게 됩니다.

‘생각의 눈’ 을 뜨고 행해야 됩니다.
그래야 <생각>과 같이 <행동>도 살아 있어 10배, 100배 얻습니다.

성자는 말씀하시기를 “<생각>을 ‘자기 애인’ 이라고 생각하고, ‘주’ 라고 생각하고, ‘하나님, 성령님, 성자’ 라고 생각하고, 분마다 생각해라.” 하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선생이 무엇이 생각나서 적으려는데, 그 순간 잊어버렸습니다.

<생각>은 일순간에 스쳐 지나갑니다.

어느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생각한 것을 잊어버립니다.

‘자기가 귀히 쓰던 물건’ 도 쓸 때 생각나서 잘 쓰다가,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몇 주, 몇 달이 가도록 아예 생각이 안 나서 못 씁니다. 생각 날 때까지 모릅니다.

‘사람’ 도 생각이 안 나면, 못 씁니다.
고로 성자께도, 그 사람에게도 자꾸 말해야 됩니다.

그리고 <자기 생각>을 관리해야 됩니다.

<말씀 마무리>

*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★ 생각해도 행하지 않으면, ‘행동이 죽은 자’입니다.

<생각>과 <행동>입니다.

<생각>하고 <실천>해야 뇌가 굳지 않습니다.

<생각>과 동시에 <몸>이 행해야 됩니다.

그래야 ‘자기 희망’을 이루고 ‘목적’을 달성합니다.

생각과 동시에 행하는 자가 ‘자기 변화’를 이루고, ‘차원’을 높이고, 자기를 만들고, 결국 ‘휴거’를 이루게 됩니다.

생각만 하면 ‘실체’가 남지 않습니다.

<생각>을 <실천>해야 ‘실체’가 남아 육이 쓰게 됩니다.

* 그래서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“생각났을 때 바로 해라. 그때 안 하면 잊는다.

생각났을 때가 기회다. 그때 즉시 행해라!

<생각>과 동시에 행하여라!

그러면 희망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한다.” (하셨습니다.)

〈생각이 살아 있는 자〉가 ‘시대 말씀’을 듣고 ‘시대 구원자’를 찾고, 그를 통해 보이지 않는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를 찾고 일체 되어 사랑하며 삽니다. 또 생각이 살아 있으니 말씀대로 행하여 빨리 ‘자기 변화’를 이루고 ‘휴거’됩니다.

〈살아 있는 생각〉을 가지고 〈행동〉도 살려서 이 귀한 때에 머뭇거리면서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, ‘자기가 행할 것’을 속히 행하기 바랍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〈생각과 행동〉이 살아 있는 자’에게 더욱 강력히 역사하십니다.

말씀 마쳤습니다.